

# 엄마와 딸,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이룬 '졸업의 꿈'

###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선경숙·강민아 모녀 학업·현장실습·봉사활동 참여하며 '노력의 결실'

최근 남부대학교 교내에서 열린 2026 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특별한 장면이 연출됐다. 초등특수교육과 선경숙(56)·강민아(28) 모녀가 한 강의실에서 같은 과정을 이수하고 나란히 학위를 받으며 졸업의 기쁨을 함께했다. 가족을 넘어 학습 동료로서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 듣고 과제를 수행한 이들의 도전은 졸업식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선경숙 졸업생은 자녀 양육 이후 늦

게 대학에 입학해 교직의 꿈을 다시 펼쳤고, 강민아 졸업생은 어머니의 도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진로를 더욱 확고히 했다. 두 사람은 학업과 현장실습,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됐고, 그 노력의 결실로 나란히 표창장을 받았다. 선 졸업생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번 모녀 졸업은 나이의 경협의 경계

를 넘어 배움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같은 날 김철웅 졸업생도 장애인 체육 발전과 대학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표창장을 받았다. 학과 활동과 봉사, 현장실습에서 모범을 보여 온 김 졸업생의 수상은 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의미를 더했다. 한편 남부대 초등특수교육과는 현장 중심 실습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통해 실천 역량을 갖춘 특수교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5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에서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교육부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남부대학교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초등특수교육과 선경숙·강민아 모녀가 나란히 교원자격증과 학위증서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 아시아 창·제작 콘텐츠 교류·자원 활용 체계 구축

### 문화재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 협약 실질 성과 바탕 협력·균형발전·문화향유 확산 기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제작 콘텐츠가 제주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한층 높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양영철)는 최근 전당재단 다목적 회의실에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협력 사업 추진, 기타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2년간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실에서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 '카본 클러', '이별만상-여러 가지 안면' 등 전당의 우수한 미디어아트 작품

을 선보이며 성공적인 협력 전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 성과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올해도 협력 전시를 이어가는 등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당재단은 전당의 아시아 문화 창·제작 콘텐츠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포함 전국적으로 확산해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규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경계를 넘어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콘텐츠 유통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아시아 문화의 정수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최근 전당재단 다목적회의실에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설립한 기관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국내외 보급 및 유통, 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한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문화상품 개발 및 각종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전당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기업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안전체험학습장에서 안전보안관 2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 영광군, 재난안전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안전보안관 20명 대상 교육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안전체험 학습장에서 안전보안관 2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안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요령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통·선박·항공 안전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실

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신문고 신고,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군은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현장 점검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체험 중심의 반복 교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보안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영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 완도군 '안전한 이음길 만들기'...전남도 공모사업 선정

### 금일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8년 연속 선정 영예

완도군 금일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남도가 실시한 '2026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까지 8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금일읍 주민자치센터가 공모한 사업은 주민과 함께 '안전한 이음길 만들기'다. 금일읍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일정항 인근 해안 도로의 난간을 도색해 보행자와 차량 안전을 확보하고 금일읍을 상징하는 깨끗한 바다와 다시마 등 지역색을 담아 낼 계획이다. 특히 관 도도가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색 작업 뿐만 아니라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 등 다

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간 협력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 2017년 완도읍을 시작으로 2019년과 2020년 고금면, 2021년 보길면, 2022년 신지면, 2023년과 2024년 고금면, 2025년 보길면·정산면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기석 완도군 행정지원과장은 "8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열정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센



완도군 금일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최근 전남도가 실시한 '2026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금일읍 주민자치센터 동행 캠페인 모습.

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 사업 선정 등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육군31사단, 예비군훈련 발전방향 모색

#### 100명 참석...드론교육 활성화 등 논의



육군 제31보병사단은 22일 강진 과학회비군훈련장에서 사단장을 비롯해 예비군훈련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예비군훈련 발전방향 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토의는 올해 예비군훈련을 앞두고 상급부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등에서 도출된 전훈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최적화된 예비군훈련 방안을 정립하는 한편, 훈련 성과를 향상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의에서는 '지역예비군 드론교육 활성화', '주특기교육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입소부터 퇴소까지

불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기시간 최소화 및 훈련과목 최적화' 방안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조영화 동원참모(중령)는 "이번 토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훈련 만족도는 물론, 정예 예비군으로서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혹서기 훈련 중지 기간 확대, 중상비 인상 등 예비군 훈련 처우가 개선된 만큼 훈련 참가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 동부소방은 지난 20일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동부소방을 비롯해 동구청, 동부경찰서와 동부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해 민·관 합동체계를 공고히 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및 좁은 진입로 내 불법 주



광주 동부소방은 지난 20일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 동부소방서

### 광주 동부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합동 훈련

#### 대인시장·남광주시장 골든타임 확보 주력

정차 차량 단속,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일반차량 양보 운전 유도·안내방송 실시, 의용소방대원 중심의 보행자 대상 거리 홍보 캠페인 등이 다.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은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는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한 광주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